

이름 오픈 데이 '우리들의 버킷리스트'

문화공간 이름, 지역민 참여프로그램으로 도민에게 공연장 오픈

문화공간 이름(이사장 이윤정)이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가족 추억 쌓기 프로젝트인 '패밀리락(樂) 콘서트'에 이어 지역민 참여프로그램인 이름오픈데이 '우리들의 버킷리스트'를 기획해 내 인생에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싶은 전북도민들에게 공연장을 오픈하고 참여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전북도 문화관광재단의 소극장 지원사업에 선정돼 문화공간 이름이 추진하는 버킷리스트는 전북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실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장르 불문하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을 표현해 예술적 가치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한 회당 1~4팀의 신청자들을 모집해 총 15회에 걸쳐 자신이 구현해내고자 하는 무대를 공연장과 협의하고 함께 기획해 완성한다. 직업적인 문화예술인이 아닌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재능을 가진 전북도민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가족, 친구, 연인 등 출연의 제한없이 다채로운 무대를 전북도민들이 직접 누릴 수 있도록



이름오픈데이 '우리들의 버킷리스트'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이 있어 제한적이었던 2년여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평범한 것들에 대한 새삼스러운 감사함에 새로이 만들어진 버킷리스트를 무대에 표현해본다.

제한 없는 공고를 통해 모집된 신청자들

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협의하여 문화공간 이름에서 꿈의 무대를 만들어드린다. 연주, 인생 이야기, 연극, 작품 소개, 회고, 전시 등 다양한 내용에 맞는 무대 소품, 연주환경을 만들어 제공한다.

프로그램 진행 중 가능한 참가자가 있다면 이벤트성 연인들의 고백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재미도 만들어 보고자 한다.

공연일시는 8월 17~21일 1차, 9월 14~18일 2차, 10월 4~7일까지 총 3차에 걸쳐 평일은 저녁 7시 30분에, 주말에는 오후 5시에 진행되며 회당 날짜는 3지방까지 가능하다.

접수 신청 방법은 전화(063.223.5323), 이메일(erum2235323@naver.com)로 가능하며 문화공간이름 블로그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접수하면 된다.

이윤정 이사장은 "이번 우리들의 버킷리스트 프로그램 참여로 지역민들이 행복하게 무대를 즐기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문화와 함께 하는 삶을 누려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여름 바캉스 정읍시립미술관으로 떠나요"

체험전시 '플라밍고의 바캉스' 14일~8월 28일 개최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전시가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정읍시립미술관은 오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여름 바캉스'를 테마로 한 체험전시 '플라밍고의 바캉스'를 선보인다.

'플라밍고의 바캉스'는 작품전시와 체험활동이 같이 연계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술관 문턱을 낮추고,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예술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막일인 14일에는 미술관 1층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가 진행되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미술관 1층라운지에 들어서면 에메랄드빛 해변이 관람객을 반긴다. 또 곳곳에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파도와 모래사장, 조명을 이용한 포토존이 마련된다.

미술관에 머물면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포토존 3곳 이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면 전시 연계 체험인 '미술관 바캉스 키링만들기' 키트를 받아 체험할 수 있다.

전시의 주인공인 플라밍고 미디어아트 작품은 오는 22일부터 1전시실에 전시될 예정이며, 관람 및 체험은 무료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오후 5시 입장 마감)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정음=김태환 기자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정읍시립미술관(063.530-5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화수 시장은 "올여름은 정읍시립미술관을 찾아 가족이 함께하는 전시 관람과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잠시나마 한여름 무더위를 잊는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음=김태환 기자

디자인에보 레지던시 5기 입주작가 5명 선정

'공존을 위한 공간' 활동 시작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2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디자인에보(대표 박세진, 김현정)가 5명의 입주작가(김아라, 윤원, 이산, 정석우, 한강)를 선정해 에보 미디어 레지던시 5기, '공존을 위한 공간(Space of Coexistence)'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 공간 활성화, 예술인의 창작환경 조성,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으로, 올해는 거주형과 비거주형에 각각 2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거주형에 선정된 디자인에보는 2018년에 전북 최초의 도시 재생형 미디어아트 전문 레지던시인 '에보 미디어 레지던시'를 오픈



김아라

윤원

이산

정석우

한강

폰해 지역 아티스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미디어아트 분야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디자인에보는 레지던시 사업 기간 중 입주작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7회, 퍼블릭 프로그램 5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는 입주 작가별 개인전(8~11월)이, 퍼블

릭 프로그램에는 작가와의 만남(8월), 아트 페어, 재즈 콘서트(10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에보 미디어 레지던시는 기존의 활동 공간인 디자인에보 사옥, 팔복오길에 더해 완주 소양고택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풍성한 전시 및 공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진안창작공예공방에서 8월 31일까지 '진안창작공예공방 전시실 리모델링 기념 기획전'이 열린다.

'진안창작공예공방 전시실' 개관 기획전

8월 31일까지 회원 작품 40여점 전시

진안군은 11일 진안창작공예공방에서 7월 11일~8월 31일까지 '진안창작공예공방 전시실 리모델링 기념 기획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사)진안창작공예공방육성회(회장 유종구)가 주관하는 이번 기획전은 새롭게 단장한 전시실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이 도자기, 용기, 서각, 금각, 가죽공예 등 공방 육성회원 및 지역작가들의 작품 40여점으로 마련됐다.

앞서 진안군은 진안창작공예공방 전시실이 노후된 것을 보고 전북도가 주관한 '작지만 특

색 있는 문화시설' 조성 사업에 지난해 공모·선정돼 사업비 1억원(도비 4천만원, 군비 6천만원)을 들여 12월말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진안창작공예육성회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회원들의 작품 및 소장품을 군민 및 관광객에게 무료로 선보인다.

기획전을 지원하는 진안군 김현수 문화체육과장 "전시환경 개선으로 진안창작공예공방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활동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군민들이 전시회를 찾아 진한 감동을 담아가는 정서적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주민시네마스쿨 초급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김제시는 영상제작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기초 영상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2022 김제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식'을 12일 김제 지평선시네마 1관에서 개최한다. 지난 5월에 개강한 주민시네마스쿨 초급과정

교육은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관내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총 10차시 김제생 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초급 교육 과정 내 수강생들은 영상 스토리텔링, 카메라 등 촬영장비의 이해와 같은 기본

개념 교육을 이수하고 영상기획과 촬영·편집 실습을 통하여 단편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번 수료식에서 선보일 작품은 뮤직비디오 1편, 단편 영화 1편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 상영 후에는 수강생들의 수료 소감 및 수료증을 배부하는 시간을 가져 그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